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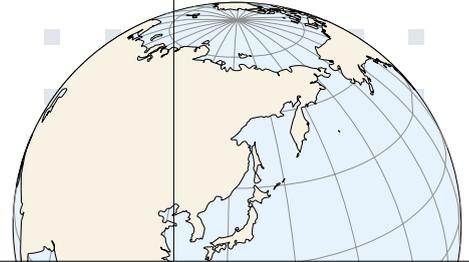


이화소식

NEWS^{HA}

2004년 6월 28일 발행 제65호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정하영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1절)

종합과학관 C동(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 봉헌식

최첨단 시설과 장비로 생명과학의 새 장 연다

'과학 이화' 이끌어갈 독창적 연구공간

본교 생명과학 연구의 요람이 될 종합과학관 C동(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이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완공되어 지난 6월14일(오전11시·진선미관 앞뜰), 봉헌식을 가졌다.

이 날 봉헌식에는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권오갑 과학재단 이사장, 박종세 랩프론티어 대표이사, 유명희 프론티어 사업단장, (주)SK 박영호 부사장 등 많은 귀빈이 참석, 이화학당 윤후정 이사장, 윤순희 동창회장, 교직원 등 이화가족들과 함께 과학 이화를 이끌어갈 새 공간이 마련된 것을 축하했다.

신인령 총장은 ▲ 97년 생명과학분야를 특성화로 선정 ▲ 98년 '세포신호전달 연구센터' 설립 ▲ 99년 대학원내 최초의 학제간 통합단위로서 분자생명과학부 설립 ▲ 학부에 분자생명과학부 신설해 05학년도부터 신입생 선발 등 이화가 그간 생명과학분야에 쏟아온 노력을 소개하고 "종합과학관 C동의 완공으로 이화 생명과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선언했다.

종합과학관 C동은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천2백30평으로 국내 최고의 첨단시설을 갖춘 실험동물유전체 연구센터가 지하에 들어서는 것을 비롯, 분자생명과학부와 세포신호전달연구센터 등이 입주하게 된다.

실험동물유전체 연구센터의 오구택 교수(분자생명과학부)는 "총 4백여평 규모로 고압 증기멸균기, EO

(사진위) 종합과학관 C동 전경. (사진아래) 박종세 랩프론티어 대표이사, 이서구 교수, 신인령 총장,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윤순희 동창회장, 권오갑 과학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있다.



가스멸균기, 패스 룸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실험 연구 장비를 갖췄다"며 이화학당 센터를 보유함으로써 최근 과학기술 경쟁력의 하나로 꼽히는 표준화된 동물실험 연구가 가능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서구 교수(분자생명과학부)는 "첨단 실험실 못지않게 학부생들이 3~4학년때부터 대학원생, 교수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초과학에 마음 붙일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화는 118년 전 오늘, 만물이 제 빛으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가운데 힘차게 탄생하였습니다.

스크랜톤 여사를 비롯한 미국인 선교사 선생님들은 여성인권

지난 해 완공한 조형예술관 C동에 이어, 금년에는 최첨단 연구·실험시설을 갖춘 종합과학관 C동이 완공되어 곧 봉헌식을 갖게 되며 경영관과 교육관 신관의 신축, 의과대학·박물관·공과대학 등의 증축사업이 진행되고, 대학원기숙사와 국제기숙사 그리고 직장탁아소의 건립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화역사의 출발을 의미있게 보여줄 '이화학당 복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화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교내에 이전 복원되는 1886년 당시의 정동 한옥교사 '이화학당'은 이화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기념물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이화의 도덕적 고양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자기헌신과 도덕성으로 새로운 미래 열어갑니다

의 황무지와 같았던 118년 전 이곳에 두려움 없이 한국여성교육의 씨앗을 심으셨으며, 김활란 선생님을 비롯한 각 시대의 이화의 지도자들은 진취적인 기상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역경 속에서도 이화를 한결같이 성장·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이화는 그동안 새로운 시대와 상황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조용히 그러나 끈기 있게 변화와 개혁의 명제를 다루어 왔으며,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개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과정에서 때로는 새로운 시설과 기구의 신속한 설립, 기구와 직제의 변경과 통폐합, 혹은 힘겨운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향 평준화의 위험이 있는 단순한 균형정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화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과 이타적 이해가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화는 지난해에 새로 경력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평생커리어'를 개발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이화리더십개발원을 개원하여 각계각층의 차세대 여성지도자들을 훈련하는 등의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의 내용과 질의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의 개편과 교양교육의 강화를 꾀하고,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가진 각급 교수를 특별 영입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장학금 확충과 교수들의 연구환경 개선,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을 설립하여 연구비 수주확충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화특성화사업단을 조직하여 우리학교의 강점 부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이들 분야는 이화가 이제 다만 한국의 대학이 아니라 세계의 대학으로 발돋움 하는 가시적 지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지금의 이화캠퍼스를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이화인들의 기상과 비전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기 위해 이화광장과 운동장의 지하를 개발하는 '이화캠퍼스센터 프로젝트(ECCP)'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이화는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화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긴 역사 속에서는 크고 작은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지하게 부채정산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선대의 유산은 자산도 부채도 함께 받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시대상황에서 이화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선대의 잘못은 우리가 그에 대한 참회를 외면하거나 가리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이화구성원 가운데서 이화정신을 훼손하는 참으로 민망한 도덕적 해이 사건이 일어나곤 하여 이화인과 이화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록 한두 사람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비록 곤혹감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화의 도덕적 기풍을 새롭게 진작시키기 위해 어떤 형태의 도덕적 해이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화의 건학이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화에게 학술과 연구의 전문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만 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화라는 이름이 세계체제하의 경쟁논리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상생의 논리로 바꾸어어나가는 여성지성공동체의 대명사로서 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화는 고유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실현해 왔습니다. 이화는 대학 중의 하나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서의 대학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체성을 더욱 명료히 하면서 최고의 자기헌신과 도덕성을 추진력으로 이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이화인 모두 함께 다짐합니다.

2004년 5. 31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신인영

본교 창립 118주년 기념식 거행-5월31일 대강당에서 '한국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본교는 지난 5월31일, 창립 118주년을 맞아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오전 10시·사진)을 갖고 118년전 '소외되고 고통받던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된 이화 탄생의 참 뜻을 되새겼다.

각계 인사, 교직원, 이화 동창, 재학생 등 4천여명이 참석한 창립 기념식에서 신인령 총장은 기념식사(2면 요약)를 통해 "이화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21세기적 교육환경속에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개혁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화에 봉직하지 10년·20년·30년된 근속 교직원에게 표창과 아울러 제1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된 황병기 명예교수와 전효숙 동문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다.

총동창회가 마련한 동창의 날 기념행사도 같은 날(오후2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기념식과 올해의 이화인 추대, 회보 경연대회 시상, 합창제, 올해의 이화인을 위한 다과회 등으로 이어진 이날 행사에서 윤순희 총동창회장은 이영희 동창(소비자간발달·74년졸) 등 47명의 동창에게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전달했다.

제1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황병기 명예교수·전효숙 동문



황병기 명예교수



전효숙 동문

제10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우리 전통음악을 현대화·세계화·대중화하는데 큰 업적을 남긴 황병기 본교 명예교수와 여성 법조인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 전효숙 동문(법학·73년졸)이 선정됐다.

황병기 명예교수는 1974년 본교 국악과 설립과 함께 교수로 부임, 27년 6개월을 봉직하면서 본교가 최고의 한국음악 연주자 양성기관으로 자리잡는데 헌신했다.

또한 한국음악사상 최초의 현대 가야금곡인 '숲'을 비롯, '침향무' '비단길' '미궁' '춘설' 등 주옥같은 가야금곡을 발표해 왔으며 4개의 국악음반, 다양한 저술활동 등으로 우리 전통음악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전효숙 동문은 73년 법학과 졸업 후 75년 사법시험에 합격, 77년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여성의 법적 권익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97년 7월)로 피의자 인권보호에 앞장섰고, 부실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들에게 4백억원의 손해배상 판결(98년 7월)을 내려 소액주주 권리찾기에도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2003년 8월, 여성으로는 최초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됨으로써 이화의 명예를 드높이고 후배 이화인들의 귀감이 되었다.

남성으로는 최초로 '자랑스러운 이화인'이 된 황병기 명예교수는 "평범한 교직원에 불과한 제가 이런 상을 받은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기뻐했다.

역대 최연소 수상자가 된 전효숙 동문은 "이화의 생산품으로는 보잘것 없는 저에게 이런 상을 주신 것은 제대로 된 일꾼이 되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녀노소가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교와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서울시와 시정개발협약 맺어



(왼쪽부터)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위원장, 류장선 서강대 총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 이명박 서울시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 신인령 본교 총장.

본교와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이하 4개 대학)가 앞으로 서울시의 시정 개발 및 지역 혁신 분야에 공동 연구 및 자문 등의 형식을 통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4개 대학과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 시정개발의 전문분야에 걸친 산·학·연·정간의 포괄적인 협력체제를 수립키로 합의, 지난 6월16일(오전 12시) 연세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시정개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신인령 본교 총장, 정창영 연세대 총장, 류장선 서강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과 이명박 서울시장,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 협약 조인에 따라 앞으로 4개 대학은 서울 시정 개발과 지역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와 자문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 정보 교류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산업체 지원에 발벗고 나서게 된다.

이번 협약 조인은 교육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이화과선교 주변 복개공사 준공, 교육관 신관 기공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지난 5월 28일(금), 의미있는 두개의 행사가 교내에서 열렸다.

지난 2년여간 이화광장 및 정문 쪽에서 진행되었던 '이화과선교 주변 복개 사업'이 마무리되어 당일 오후 11시 박물관 앞 복개구조물 상부에서 준공식을 가졌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관 앞 신관 부지터에서는 사범대학의 숙원이었던 '교육관 신관'의 기공식이 마련됐다.

'이화과선교 주변 복개 공사'는 고속철도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높이가 낮은 이화과선교(이화교)를 철거하고 의령터널 전방에서 대학교회 주변까지를 복개한 공사로, 철도부지를 통해 학교로 접근하게 될 상업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화의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수호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복개공사는 본교가 추진하는 이화캠퍼스 센타 프로젝트(ECCP: Ewha Campus Center Project)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번 완공으로 새로 조성된 3천7백여평의 공간은 스포츠 스트립, 녹지 등 이화인들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화소식



복개공사 준공식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교내외 인사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관 앞 신관 부지터에서는 한국 최초의 사립 전문교원 양성기관인 본교 사범대학 교육관 신관의 첫 삽을 뜨는 행사가 열렸다.

공간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교육협의회 및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왔던 사범대학은 연면적 3천2백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최첨단 건물인 교육관 신관이 신축되는 2005년 12월 이후에는 교육대학원, 수학교육학과, 과학교육학과 등 관련 기관을 집약시키고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강의실 등을 확충하여 한국 최고의 교원 양성 인프라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12월에 완공될 교육관 신관 조감도

그래픽 인터페이스 연구소(IGI), 본교에 개원

세계 최고의 가상엔진시스템 개발한다



컴퓨터그래픽 및 가상현실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독일 프라운호퍼 IGD연구소의 한국연구·개발(R&D)센터가 지난 5월17일 본교에서 문을 열었다.

프라운호퍼 IGD연구소는 이날 (오전 11시) 본교 국제교육원 LG컨벤션홀에서 신인영 총장을 비롯,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미카엘 가이어 주한 독일대사, 엔카르나샤오 프라운호퍼 IGD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사진)을 갖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연구원 등과 한국R&D센터로 지정한 '재단법인 그래픽 인터페이스연구소(IGI: Institute for Graphic Interface)의 개원을 위한 기본계약과 공동연구합의서에 조인했다.

IGD연구소 한국R&D센터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해 온 해외 IT(정보기술) R&D센터 유치사업의 첫 번째 결실. 앞으로 본교는 물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등 국내 연구진과 공동으로 자동차·조선·정보가전 분야의 제품 디자인과 설계·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세계 최고의 '가상엔진시스템(Virtual Engineering System)'을 개발할 예정이다.

프라운호퍼 측은 이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독일 현지에서 고급연구인력 10명을 파견하는 것을 비롯, 88억5천만원 상당의 현물을 투자하게 되고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연구개발비 2백억원을 지원한다.

본교, '이화' 및 'Ewha' 상표권 지키기 나서

'이화' 상표 무단사용 중인 업체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심판 제기

본교가 학교 고유 명칭인 '이화' 및 'Ewha' 마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 마크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문제의 발단은 영어교육 등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는 이엘씨 코리아(주)가 지난 2002년 2월~12월 '이화' 및 'Ewha' 마크가 포함된 서비스표와 상표 17건을 교육훈련업 분야 및 서적·학습지 등을 대상으로 출원하면서 비롯됐다. 이엘씨 코리아(주)는 이중 10건에 대하여 등록결정이 내려진 2003년 9월~2004년 2월 특허청에 '이화' 및 'Ewha'를 서비스표와 상표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교는 '이화' 및 'Ewha' 마크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2003년 10월~2004년 5월, 교명 '이화여자대학교'와 교표(벚치), 그리고 '이화' 및 'Ewha' 표장을 교육훈련업 등의 서비스업과 서적·문방구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상표,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으로 출원했으며, 지난 5월 21일에는 특허청에 이엘씨코리아(주)가 등록한 위 10건의 상표와 서비스표들에 대하여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본교 기획처 김유환 부처장(법학과 교수)은 "이엘씨 코리아(주)가 '이화' 또는 'Ewha'를 포함하고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화' 또는 'Ewha' 마크의 저명성에 편승, 무단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그로 인한 오인으로 받게 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로 이화, 세계로 한국음악’

한국음악과 30주년 기념한 다채로운 음악회 열려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음악과가 ‘미래로 이화, 세계로 한국음악’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자축 행사들을 마련했다. 5월11일부터 6월2일까지 총5회에 걸쳐 열린 연주회에는 한국음악과 교수들과 재학생, 동문들이 하나가 된 국악의 향연이 펼쳐졌다.

첫 번째 연주인 5월11일 정기연주회에서는 황병기 명예교수가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편곡한 25현 가야금 합주곡 연주를 비롯해 관현악곡 ‘사랑사랑 내 사랑야’(작곡 원영석), ‘향연’(작곡 이준호)이 초연되었고, 대취타·수제천·산조 등 다양한 국악 장르의 연주들이 선보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후 5월13일 동문연주회와 14일 정기연주회, 28일 교수음악회의 성공적인 공연에 이어 6월2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기념연주회에는 이춘희(경기민요), 안숙선(판소리) 등이 협연해 본교 한국음악과의 뜻깊은 30주년을 축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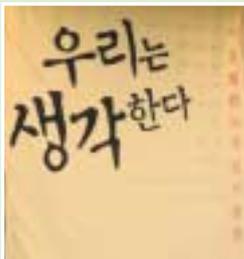
이화의 국악교육은 이화여전 시절인 1927년에 한국음악 시간을 배정하고, 30년에는 ‘한국음악/기악’ 교과목을 채택,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전통 음악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974년에 국악의 학문적 연구와 계승, 발전을 목표로 문을 연 한국음악과는 20명의 첫 입학생을 받았다. 국악연주홀과, 국악연주실 및 주요 국악기를 갖춘 여성 국악인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며, 78년에는 석사과정을, 88년에는 박사과정을 신설했다. 설립 초기에는 5전공이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공을 세분화, 현재는 12전공으로 늘어나 전문 국악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한다’ 여성의 삶을...

철학과 30주년 맞아 기념식



1974년 일곱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철학과가 30주년을 맞아 지난 5월28일(오후 6시30분) 대학교회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여성이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조차 생소하게 여기던 분위기속에서도 철학과는 교수와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78년에는 석사과정을, 89년에는 박사과정을 개설, 해마다 많은 여성 철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 ‘여성 철학’의 영역을 정립해왔다.

이 날 기념식에는 철학과 교수·학생 1백50여명을 비롯, 철학과에 몸담았던 소흥렬 포항공대 석좌교수, 신옥희 교수, 박이문 교수 등이 참석해 서른번째 생일을 자축했고, 서광선 명예교수(기독교학)의 영상 축하 메시지도 전달되었다. 또한 프랑스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연세대 영상대학원에서 강의중인 영화감독 차도연 동문(89년졸)의 영상물 ‘Ewha Philosophy 30 Years’가 상영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78년부터 발행하다 잠정적으로 중단한 학회지 ‘우리는 생각한다’의 제호를 되살린 30주년 기념 책자(사진)도 발간됐다. 현 동창회장인 소설가 전해성 동문(83년졸)의 글을 비롯해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 30여명의 추억어린 글이 담겨 있다.

철학과 동창회에서는 30주년을 기념해 ‘철학과 미래를 위한 씨앗기금’을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앞으로 이를 위해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세계적 여성 리더들, 본교서 특강 가져

전신애 미 노동부 여성국 차관보와 ‘칼라퍼플’의 저자 앨리스 워커



세계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인 이화에 세계적인 여성명사들의 방문과 특강이 이어지고 있다. 본교 동문으로 미국내 한인 여성으로는 가장 높은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전신애(영문 65년졸) 미 노동부 여성국 차관보(사진 위)가 지난 5월24일(월) 이화리더십개발원(원장 조 형 교수)에서

‘미국 여성 노동 정책의 현안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국내 관계 및 재계, 사회단체 여성인사 40여명이 참석, 한국과 미국의 여성정책 현안들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전 차관보는 현재 전미를 순회하며 ‘Women’s Leaders Forum’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성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미국 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1세기를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IT 교육을 손꼽았으며, 이공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5월28일(금)에는 영화 ‘칼라 퍼플’의 원저자인 흑인 여성운동가 앨리스 워커(사진 아래)가 ‘자연/여성/여성성’을 주제로 강연했다.



앨리스 워커는 흑인·유색 인종 여성들의 용기와 열정을 강조한 ‘우머니즘(womanism)’을 주창, 여성계에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특강을 통해 타인을 돌보는 여성적 특성의 소중함,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에는 4백여명이 넘는 이화인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열기속에 하나된 5월의 이화인들



우중축구의 시원한 승리 - 장대비가 쏟아지던 5월28일,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화인 하나되기 축구대회의 결승전이 열렸다. 골을 향한 투혼이 넘쳤던 이날 경기에서 법학과가 4:1로 국제학부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일상의 탈출, 함께하는 즐거움 - 5월27일에 개막된 대동제, 이화인의 젊은 웃음으로 가득찬 캠퍼스가 눈부시다. 일상탈출에 동반한 친구가 있어 좋고, 여럿이 함께 대동의 줄을 잡을 수 있어 좋다는 그들의 세상이 펼쳐졌다.



가상 현실 속에 담긴 진짜 삶의 모습들

제4회 E미디어아트 페스티벌(EMAF), 5월21~22일 열려



지난 5월 21일과 22일 밤(7시30분~10시30분), 본교 본관 및 중강당 주변 숲은 대형 스크린이 화려한 빛을 발하는 '아외 첨단미디어 미술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조형예술대학(학장 김영기 교수)이 2001년부터 주최해온 이마프(EMAF: E-Media Art Festival)의 네 번째 행사가 숲속 곳곳 빈터에 설치된 대형 영상막 10개를 배경으로 펼쳐진 것.

'대체 현실' (Alternative reality)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북유럽에서 활동중인 여성 비디오 작가 15인의 작품을 비롯, 국내 30대 초중반의 신예작가 초대전, 학생 대상의 창작공모 수상작을 모은 '이화 프라이즈', 아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편집한 '아시아 미디어 아트전'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화의 생일, 함께 즐겨요' - 118주년 창립 기념일인 5월31일, 총동창회(회장 윤순희) 주최로 동창의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된 47명의 동창들은 고운 한복을 똑같이 맞춰입고 이화의 생일 잔치를 함께 즐겼다.

'만점입니다. 만점' - '제2회 외국인 문화축제'가 대동제 기간인 5월27일 학생문화관 앞에서 열렸다. 언어교육원에서 마련한 이 행사는 제1부 외국인 가요 및 가곡제, 제2부 세계 춤 공연과 각국의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세계 음식 축제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가요·가곡제에는 10팀의 외국인 학생들이 각자 열심히 준비한 다양한 한국 노래들로 치열한 경쟁을 벌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2004 이화 국제 컨퍼런스 - 국제화 특성화 사업 추진단은 5월14일, 이화·SK 텔레콤관에서 '세계 우수 대학들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주제로 '2004 이화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Mark Williams 전 주한 호주 대사, Akira Kohsaka 일본 오사카 대학 교수, 손성규 연세대 Global MBA 이사 등의 국제화사례 발표 후 참가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2004 신문·방송으로 가는 길' - 지난 5월18일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이화언론인클럽과 경력개발센터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언론 진출 졸업생들의 성공담과 준비 과정을 나누기 위해 매년 마련되는데, 올해도 2백여명이 소극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흔들고, 찢고, 스트레스 제로! - 체육과학대학이 창립 118주년 기념행사로 마련한 '이화가족 움직임 체험의 날'이 5월25일 체육관 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리듬체조, 재즈댄스, 왈츠부터 탱고, 자이브에 이르는 댄스스포츠 등의 화려한 시범공연이 선보였으며, 이후 김숙자 교수(사회체육)의 재미난 설명과 시범에 따라 교직원 및 이화 가족들의 '댄스 시간'이 이어졌다. 열띤 춤판으로 한 마음이 된 참가자들은 어설플 몸짓에도 불구하고 땀에 젖고, 분위기에 취하는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평생교육원, 개원 20주년 맞아

1984년 3월에 개원한 이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효시로 우리나라의 '열린 교육'을 이끌어온 본교 평생교육원(원장 이배용 교수)이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았다.

'평생교육'의 개념조차 서 있지 않던 시절, 대학의 교육인프라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세워진 평생교육원은 그동안 2만5천명 이상의 수강생과 총 1만2천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 재교육 기관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 왔다.

평생교육원의 설립은 '한국 최초로 만들어 온 이화'가 또 하나의 역사를 추가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젊은이들만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교과 과정을 마치게 되어 있던 대학교육이 나이와 관계없이 개방된다" (동아일보 1983. 11. 28)는 점도 당시에는 사회적 반향이 큰 획기적인 일로 여겨졌다.

수강등록 몇시간만에 마감되는 강의가 속출하고, 수강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수강신청기간만 되면 당시 평생교육원이 위치했던 경영관 주변은 등록순서를 기다리는 여성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으며, 본교 평생교육원이 거둔 교육성과는 이후 다른 대학들이 평생교육기관을 속속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주부, 사무직 여성, 그리고 근로여성들을 위한

강의를 주로 개설했던 평생교육원은 대학부설 평생교육 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반화됨에 따라 교육내용을 직업준비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등으로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다.

1997년에는 신축된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 전용 교육공간을 확보,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교육과정도 꾸준히 개발하여 현재에는 전문교육과정, 자격증 및 학점은행과정, 교양교육과정, 생활교육과정 등 4가지 교육영역에 1백여(과목)을 개설, 연인원 3천2백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본교 평생교육원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생활아카데미', 중국 연변지역의 여성지도자를 위한 '이화-연변아카데미', 아시아 최초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지난 5월21일(금·오전 10시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창립20주년 기념식(사진)에는 정의숙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신인령 총장과 김동철·황응연·홍부길 교수 등 역대 평생교육원장, 각 대학 평생교육원장, 수강생 및 동창 등 3백여명이 참석, 성인이 된 평생교육원의 발전을 축하했으며 20년 발자취를 기록한 비디오와 '평생교육원 20년사'도 함께 발간되었다.



기
관
소
식

입
학
자
소
식

고교생을 위한 현장체험 프로그램 실시

입학처(처장 성태제 교수)가 우수고교 1,2학년 학생을 초청하여 본교를 홍보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월6일 서울예고를 시작으로 세화여고(5월 21일), 숙명여고(6월2일)등 1천5백여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들은 이화의 역사가 곧 여성교육의 역사임을 알게 되고,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대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된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학생들이 제작한 뮤직비디오와 특강, 동아리 특별공연, 선배와의 캠퍼스투어로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화의 새로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화로' 제23호 발간

고교생을 위한 본교 입학안내 뉴스레터인 Ewha@ro 제23호가 나왔다. 입시정보와 대학소식 그리고 이화인들의 활기차고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담은 Ewha@ro는 '이화여대를 통해 세계로, 미래로 열린 길'을 의미하며, 전국 고등학교 및 본교를 방문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배부하는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본교 홍보대사 재학생 모교방문단

입학처는 재학생 모교방문단을 구성, 스승의 날 전·후로 1학기 모교방문활동을 시작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56개교/101명과 지방지역 64개교/76명등 총 120개교/177명으로 구성된 모교방문단은 이화에서의 학교생활과 이화를 선택한 자신의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 입학설명회 개최

입학처는 5월29일 대강당에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모집을 위한 구술·면접특강 및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수험생, 학부모 및 교사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입학 전형안내와 교육학과 황규호 교수의 구술·면접 특강이 있었으며,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한방 진료 10주년

본교 성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영순 교수)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시해 온 한방 진료(사진)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1천8백여세대, 5천여명의 저소득 인구가 밀집한 지역적 배경을 살려 시작한 한방 진료는 경희대 김창환 교수와 한의학과 본과 3,4학년생으로 구성된 진료팀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이 지역 고령인구 1천여명을 대상으로 격주로 진행되는 한방 진료는 연간 진료실적이 1천여건이 넘어섰으며 침, 뜸, 문진 등으로 만성질환을



주로 치료하고 있다.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진료 10주년을 기념, 지난 5월15일(오후5시), 한방진료가 끝난 후 조출한 기념식을 마련하고, 경희대 진료팀의 노고에 감사했다.

“이화와 한국을 전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죠”

- 내년 6월의 세계여성학대회 준비로 분주한 장필화 조직위원장

앞으로 꼭 1년 후인 내년 6월19~24일, 이화 캠퍼스와 연세대, 서강대 등 신촌의 대학가는 3천여명의 세계 여성리더들이 집결하는 거대한 토론과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한국여성학회와 본교가 공동 주관하는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가 펼쳐지는 것.

이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필화 교수(여성학과)는 이 행사의 의미를 ‘인류가 겪고 있는 문명의 갈등을 여성들의 손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한국과 이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도 누누이 강조한다.

“우선 이화의 국제적 인지도와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전세계 1백여국의 여성학자, 여성운동가, 여성정책 전문가 3천여명이 우리 캠퍼스에 일시에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CNN 같은 방송이 전세계 안방에 중계하구요. 우리는 앉아서 엄청난 홍보 효과를 보게 되는 거지요.”

초청연사중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 상원의원,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2003년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시린 에바디 테헤란대 교수, 거투르드 몽겔라 범아프리카 의회 의장 등 거물급 여성들



장필화 조직위원장

이 포함되어 있어 이 대회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매 3년마다 대륙을 옮겨가며 열리는 세계여성학대회는 특히 아시아에서는 내년 대회가 처음이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여성들의 주요 이슈를 부각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회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서’ (Embracing the Earth: East-West/North-South).

지구촌 남과 북의 빈부격차, 동과 서의 문화적 가치 충돌, 동서남북 경계의 복잡화 및 다양화에서 파생되는 이슈들을 여성의 삶에 비추어 진단하고,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을 여성적 가치와 시각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IT에 강한 한국의 강점을 살려 4백80여개의 세션별 토론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고, 학술대회와 함께 여성영화제·여성마라톤 대회 등 다양한 문화·스포츠 행사를 마련, 한국의 경제 문화적 역량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가 될 내년 대회가 이화 캠퍼스를 주무대로 펼쳐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는 장교수는 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덕>



인
터
뷰

“할머니와 나는 캠퍼스 단짝”

만학도 김혜숙씨와 외손녀 최서윤양



김혜숙씨(왼쪽)와 외손녀 최서윤양

지난해 본교의 금혼학칙 개정 후 올봄에 재입학한 김혜숙씨(의류직물·54년 입학)는 졸업을 앞둔 만학도이다. 오는 8월,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50년만에 졸업장을 받는 그에게는 특별한 단짝이 있다. 바로 외손녀 최서윤양(섬유예술·3학년). 반세기 가까운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단짝이 된 두 이대생을 만났다.

“손녀 덕에 졸업사진도 찍었습니다. 일흔이 넘어 20대의 동급생들과 어울려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많이 망설였죠.” 하지만 손녀인 서윤양이 직접 날짜와 장소도 알아보고 촬영 때 옆에서 지켜봐준 덕에 만학의 결실을 남길 수 있었다.

“처음엔 다들 제가 졸업생인 줄 알고 학사모를 씌우더라구요. 할머니가 학생일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아마 제가 옆에 없었으면 할머니께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김혜숙씨는 재학시절 메이컨 행사에 과대표로 선발되기도 하고, 의상 발표회에도 학생 대표로 졸업 작품을 출품했을 정도로 활발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4학년 1학기, 집안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졸업 학점을 다 따놓고도 졸업장을 놓쳤다.

“결혼후에도 공부에 미련이 남아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도 했어요. 전공을 살려 국제복장학원에 다녔는데, 운이 좋았는지 전국콘테스트에서 1등한 적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옷들이 예뻐서 제가 입고 다니기도 했죠.” 멋쟁이 할머니의 조언은 서윤 양이 전공으로 섬유 예술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제는 학교를 다시 찾은 할머니를 위해 수강신청과 필요한 학사 일정들을 옆에서 꼼꼼히 챙겨드렸다. 매주 수요일에는 할머니가 수강하는 채플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려 점심시간을 같이 보냈다. 친구들은 할머니에게 ‘미팅’을 주선하겠다는 농담을 던지며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다.

“서윤이는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김혜숙씨는 한 실습 과목의 과제를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레포트로 제출했다. 그간 살아왔던 일들과 오랫동안 혼자서 물어왔던 꿈들을 적어 내려가다 눈물을 쏟았었다는 그는 이화에서 자신의 뒤를 잇는 손녀가 무척 사랑스럽다고.

서윤 양의 웃음이 뒤를 잇는다. “할머니는 계속 사회생활을 하셨으면 큰일을 하셨을 거예요. 선배님으로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

숨겨진 이화의 역사를 찾습니다!!

이화학당 복원 계기로 이화 역사 자료 수집 캠페인

지난 4월8일 본교 이화역사자료실에는 이화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 기증되었습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상 유일한 여성주필(1944년 '태평양 주보')이었던 전수산 동문의 이화학당 졸업증서(1912·사진) 1장과 진급증서(1910,1911) 2장 등 총 3장의 이화학당 관련 증서가 이덕희 하와이대학 교수를 통해 모교에 전달된 것입니다.

전수산 동문의 졸업증서 기증을 계기로 본교는 이화역사자료실을 통해 이화 역사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집 캠페인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화 동문과 학교 관계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이화역사 자료들이 모교에 돌아올 수 있다면 한국 여성 교육 개척사이기도 한 이화의 역사를 보다 생생하게 오늘에 되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화 1백20년 역사의 흔적들을 찾는 이 뜻깊은 일에 모든 이화

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증되는 다양한 역사 자료들은 분류 작업을 거쳐 2006년 복원될 이화학당에 특별 전시되는 등 이화의 역사로 길이 남게 됩니다.

수집 대상으로 하는 자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및 연도 불문)

학생회 관계자료, 교수기록, 학교관련 지역행사, 성적표, 학생증, 수감신청서, 상장, 졸업장, 플래카드, 포스터, 교복 및 체육복, 역대 교표(뱃지), 교기, 강의자료, 시험지, 리포트, 출석부, 대학요람, 회의록, 문서류, 간행물, 시청각 자료(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슬라이드, 필름), 기념품 등 대학활동과 관계된 모든 기록물, 학내 각종 행사자료

연락처 : 이화역사자료실 (02)3277-3196, 3199.

이메일 : ksw@ewha.ac.kr, jweun@ewha.ac.kr



교수동정



강우방 교수(미술사)가 지난 5월15일,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 공포의 기원적 형태와 상징'이란 주제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오진경 교수(미술사)가 지난 5월15일, 포스코관에서 '미술사와 교육'을 주제로 한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제15회 전국학술대회를 열었다.



정대현 교수(철학)가 2004년도 본교 출판부 저술지원 과제에 저술명 '다원주의 시대와 그 대안적 가치-성문화의 관점에서'로 선정되었다.



정재서 교수(중문)가 지난 5월22일, 포스코관에서 '신화·민족·아이덴티티 -동아시아 신화학의 재정립을 위하여'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준승 교수(생명과학)가 5월19일 전국 연구처장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9대 회장으로 피선되어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었다. 아울러 6월21일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미정 교수(컴퓨터)가 수행한 '정책기반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품질 지원'에 관한 연구가 지난 5월27일 과학재단이 주는 '2004년 우수연구 성과 30선'에 선정됐다.



김희성 교수(기약)가 지난 6월14일(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파이프로르간 독주회를 가졌다.



윤명자 교수(성악)가 지난 5월21일(저녁 7시), 김영의 홀에서 독창회를 가졌다.

성태제 교수(교육)가 지난 5월21일, 한국교육평가학회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성교수는 현 회장을 보좌하다가 차기학회에서 회장을 맡게 된다.



이성순 교수(섬유예술)가 지난 6월 10~20일, 갤러리 목금토와 6월14~18일 현우디자인에서 모시의 멋을 주제로 한 인테리어 전시회를 가졌다.

퇴임교수동정



김홍호 퇴임교수가 지난해 '주역강해 1·2·3'을 펴낸데 이어 지난 3월과 4월 '서양철학 우리 심성으로 읽기 1- 철인들의 사상' '범화경 강해' 등을 출간했다. 김 퇴임교수는 앞으로 총 40 여권에 달하는 사상전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부음

이승환 명예교수 별세

이승환 명예교수(영문)가 6월16일(수) 새벽5시 별세했다. 73년 부임 이후 이화에 26년간 재직하면서 언어교육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의 보직을 역임했다. 75년에는 한국언어학회를 창설했고, 86년에는 언어장애자들의 복지를 위한 한국언어병리학회 만들어 회장을 맡는 등, 언어병리학 분야의 개척자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창립 118주년 기념 장기근속 교직원 표창

30년 근속	교수	최승현(건반악기), 김수정·유혜자(도자예술), 김신자(교육공학), 김문실·이자형(간호), 김미경(식품영양)
	직원	김영화(조형예술대학), 백승옥(사범대학), 김영재·양한희(관재과), 김윤옥(후생복지과), 김난숙(회계과), 이재숙(구매과), 최은숙(중앙도서관), 최양숙(경력개발센터), 하상일·유명심·홍경란·양지균·오세양(부속 이화·금란중학교), 김영(목동병원)
20년 근속	교수	이상호(컴퓨터), 정하영(국문), 양승태(정외), 김용서(행정), 안홍식(경제), 안병태(화학), 채문경(건반악기), 이귀자(작곡), 오용길(한국화), 류희영·장화진(회화·판화), 배천범(복식디자인), 강석영(도자예술), 김기웅(체육), 오욱환(교육), 조연순(초등교육), 유계화(과학교육), 이택수(경영), 이경자·노권재·전선휘(의학), 김길수·유종규(약학), 박성연(소비자간발달), 조규화·전동원(의류직물), 김화영·김광옥(식품영양)
	직원	송유정(교무과), 이상두·백승철·박호경·홍순일(총무과), 김은순(후생복지과), 이경재(중앙도서관), 김영심(학생복지센터), 박보옥·이한순·독고현·강영진(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 한미자·이현숙·이근구(부속 이화·금란중학교), 오종환(부속 초등학교), 한승희·송경순·최순옥·임진숙·이수연·전승은·성기원(목동병원), 정순심·장남옥·한은주·문어진·박양자·김미영·김지수·민경미·이범숙·배효숙·김신희·이언주(동대문병원)
	연구원	이은경(멀티미디어교육원)
10년 근속	교수	이공주(분자생명), 이민영(나노과학), 이미정(컴퓨터), 임석재(건축), 박창원(국문), 이수미(불문), 오정화(영문), 오진경(미술사학), 전주성·차은영(경제), 유익선(언론홍보영상), 안창림(물리), 정준모(생명과학), 배일환(관현악), 윤명자(성악), 문재숙(한국음악), 오숙환(한국화), 강애란(회화·판화), 김현중(환경디자인), 김혜연(복식디자인), 원형중·함정혜(사회체육), 한정선(교육공학), 이소현(특수교육), 이선화·정화순·김영철·정우식·김양우·윤태식·조영주·서정란·김중호·김승철·최규룡·이청기·김동준·김광호·이미애·성연아·김경호·황규광·정규영·최수승·박시훈·김명현·이선영·성순희·문혜성·유정현·이홍수·강덕희·이상화·윤하나·최혜영(피부과학교실)·최혜영(진단방사선과학교실)(의학), 정순희(소비자간발달), 김중준(의류직물)
	직원	정연화(조형예술대학), 민순영(의과대학), 임정미(학적과), 경규명(시설과), 김태호·나병용·최희정·차태진·지민구(부속 이화·금란중학교), 오인숙·조숙선·홍정근·정봉규·유재홍·이용우(부속 이화·금란중학교), 송혜순(부속 초등학교), 이선녀·김용권·노수범·장동혁·류근택·백찬기·유영규·강보걸·김길환·차관준·우종성·이신원·백형균·박항숙·정은선·김승구·한정우·박권진·윤석기·허창범·김범석·김병대·홍미정·박현자·김수기·유연순·최수연·이정화·홍민자·이옥희·이미숙·김진숙·고민정·한효경·김학란·현은숙·김화숙·소남순·심금순·이복순·류현진·이운희·박영환·박권식·유정민·김병준·이정남·김미옥·윤덕기·홍순희·김영신·우지숙·박명서·이운기·연관모·노선화·최기숙·김성현·김창성·옥현일·김종학·이병무·김한진·이연학·유현태·김용직·양재형·박희정·원지연·박성호·박희달·김대중·장두진·최종진·임금산·박찬애·이주환·최정미·김선애·박은주·강경화·장영옥·임영자·고재형·김상하·김선택·송요섭·김상열·김정하·최송희·한미라·곽영남·김인순·박미숙·권정희·김한옥·서인숙·나상효·강준봉·최혜진·홍명희·김부환·박준우·김옥례·홍종희·이재기·서동춘·문귀식·김재영·최동균·임영희·김신아·전정희·박은미·조영미·최미정·김막례·신인희·전미숙·방일화·김경선·박민자·전경덕·윤연·박정숙·민정아·이지선·조규철·변영순·김미자·김성길·차현용·주재철·황재모·전진숙·최수진·최종민·노진희·심영지·임현빈·한인순·정선옥·임미경·임정순·이복실·김기순·차선화·임선미·김미숙·정재필·안희성·서창범·김성자·강숙희·조용자·라지영·조선행·이은희·이미향·최정희·허영희·신옥분·김지선·박정순·조은영·이영숙·이준석·김유정·최영숙·김미경·송충실·이근애·정선영·한유정·정희자·류선열·김수경·최애선·김현원·양상숙·박정구·고대경·박종관·서삼숙·전인숙·권미화·이선진·이은주·이철호·박두수·김유현·오세진·정준석·이금정·김영숙·김희라·정수영·구민서·고인배·윤도식·서정민·기부성·김승철·김은희·김경환(진단방사선과)·김경환(내과)·김경희(진단검사의학과)·김경희(약제과)·이은영(신생아실)·이은영(원무과)(목동병원), 김성란·김두정·김은화·천미이·이주영·조정미·공자민·조진구·김길영·황인영·이윤화·조순정·김대범·허유정·이일란·장성옥·오홍열·윤선휘·장수호·백인엽·이경선·이철휴·강신수·박종기·박수진·김형중·이재권·김영숙·정수정·조현주·김은주·강태성·한명애·진희정·이수민·박종울·최현오·이임숙·이유미·김종신·공재완·고영주·이여빈·한상섭·이평재·정민옥·김민자·조정연(동대문병원)



창립 118주년 기념식에서 신인령 총장이 20년 근속자인 김영심 학생 복지센터 과장에게 표창장과 기념품을 수여하고 있다.

이
화
소
식

인사발령

신임직원 류희정씨 임명
 지난 5월17일자로 류희정씨가 연구과·산학협력단의 사무직원으로 신규 발령되었다.



류희정

이화가족, 용천 돕기 성금 모금에 한뜻 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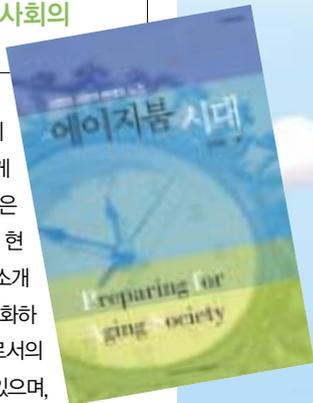
용천역 참사 관련 북한 돕기 성금 모금에 본교 교직원들이 적극 동참해 따뜻한 동포애를 실천했다. 지난 4월4일부터 5월10일까지 기획처(처장 정하영 교수)에서 추진한 이번 모금에는 5백77명의 교직원이 참여, 총 1천 6백91만1천원의 모금액을 모았다. 이 모금액은 본교 교직원 일동으로 동아일보에 기탁, 이후 북한측에 전달되었다.



에이지북 시대 |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전망

조성남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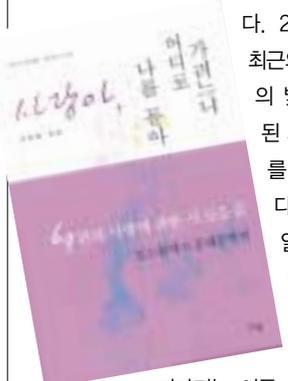
'에이지북 시대'란 전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를 보내게 될 미래의 시대를 말한다. 이 책은 그러한 '예비 노인 시대'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노인'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이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사회 구성원인 '시니어 시티즌'으로서 새로운 세대와 상호작용해가면서 어떠한 삶의 방식을 구축해나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노인 세대에 대한 이해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우리가 당면할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도전들을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2만원>



사랑아, 나를 몰아 어디로 가려느냐

정끝별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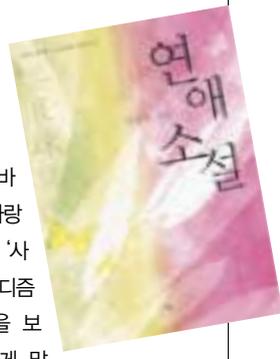
'사랑의 글모음' 시리즈 세 번째 책으로, 시인이자 평론가인 정끝별씨가 평소 아끼던 사랑에 관한 한국시 69편을 모았다. 20년대 김소월에서 최근의 문태준까지 시인들의 빛나는 언어로 형상화된 사랑의 다채로운 정의를 한꺼번에 접할 수 있다. 엮은이는 이 시들을 읽으며 사랑을 배우고 익혔으며 또한 여전히 사랑을 꿈꾼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랑을 기다리는 이들, 현재 사랑에 빠진 이들, 그리고 지나간 사랑을 추억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시집을 권한다. <7천5백원>



연애소설(宴哀疎說)

김미현 엮음

'사랑의 글모음' 시리즈 네 번째 책으로, 문학평론가 김미현 교수가 연애에 관한 14편의 소설 및 글을 모았다. 엮은이는 연애의 객관성이 아닌 주관성, 통시성이 아닌 공시성, 존재성이 아닌 실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애의 기쁨(宴), 슬픔(哀), 소외(疎), 담론(說)의 주제로 소설들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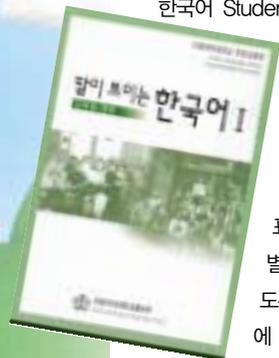


해 하고 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강변하는 윤영수의 '사랑하라, 희망없이'부터 사디즘적이고 폭식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은희경의 '타인에게 말 걸기'까지 만화경같은 연애의 생로병사를 밝혀주는 글들이 총집합되어 있는 이 소설선집이 독자들에게 사랑의 자습서가 될 것이다. <1만2천원>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지음

'말이 트이는 한국어 단어집'은 '말이 트이는 한국어 Student Book'의 보조교재이다. '준비합시다(Activities)', '해봅시다(Tasks)', '침터(Culture)', '읽기(Reading)'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문법뿐 아니라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 특별히 학습자의 어휘 습득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졌으며, Student Book에 실린 새 단어, 구(句)와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각 4단계씩 총 12종이 있다. <1단계 각 6,000원, 2단계 각 7,000원, 3단계 각 8,000원, 4단계 각 6,000원>



<http://www.ewhappress.com>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인터넷 서점 개설

본교의 우수 도서 및 이화 로고 상품 판매



출판부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충분한 도서 정보와 결제 시스템을 갖춘 인터넷 서점으로 개편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본교 출판부의 책을 알리고, 지역적인 조건이나 시간적 여건이 용이하지 않은 독자들이 손쉽게 도서를 접하고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간 출간한 도서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각 도서에 대한 미디어 서평 및 상세한 정보와 함께 개별 도서와 출판부에 대한 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독자서평란도 마련했습니다.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교 교수의 연구 저서 홍보를 통한 학문적 경쟁력 제고와, 다양한 교양도서·강의교재의 폭넓은 보급, 원활한 판매 등이 기대됩니다. 또 한글 인터넷 서점과 더불어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 외국 대학을 비롯한 외국연구소 등지에도 본교의 학술서 및 연구 활동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출판부 온라인 서점은 저희 출판부 도서뿐만 아니라 포토 다이어리, 달력을 비롯하여 본교 박물관에서 제작한 인쇄물, 이화 로고 상품 등을 취급하며, 무통장입금은 물론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이화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의 공동체 정신으로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2004년 입법고시에 2명 합격



국회사무처가 지난 5월20일에 발표한 제20회 입법고시에 본교 출신인 나아정(사학 97년졸·사진위)



동문과 이유미(경영 00년졸·사진아래)동문이 각각 재정직과 일반행정직에 최종 합격했다. 3백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2004년 입법고시의 최종합격자는 총 19명이며, 이중 여성은 4명이다.

김순희 동문(교육 55년 졸)



지난 5월,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수여하는 제36회 신사임당 수상자로 선정됐다. 초전섬유·퀵트박물관 관장이기도 한 김동문은 어릴 적부터 취미로 자수를 배워 45년간 자수와 조각보 작업에 매달려 왔다.

서명선 동문(사회복지 76년 졸)



지난 5월12일,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동문은 여성개발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부 대외협력국장,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앞으로 3년간 여성개발원을 이끌게 된다.

이수자 동문(교육공학 79년 졸)



한국형 여성 주제이론을 모색한 저서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여이연)을 최근 출간했다. 성신여대 교수이기도 한 이동문은 이번 저서에서 노동, 몸, 욕망 등 3대 주제를 중심으로 1백여년에 걸친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적 주제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점검했다.

이숙현 동문(가정 67년 졸)



본교 남가주지회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이 동문은 로스엔젤레스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한 가든 스위트 호텔(Garden Suite Hotel & Resort)을 경영하고 있다. 이 호텔은 50개의 일반객실과 25개의 스위트룸이 있으며, 각종 부대시설 및 연회장도 마련되어 있다.



정애경 동문(신문방송 91년 졸)



지난 5월30일 3백대1의 경쟁을 뚫고 세계무역기구(WTO) 법률국 고문변호사로 선정됐다. 외교통상부 통상법률지원팀 소속인 정동문은 한국인으로서 두 번째로 WTO 법률국에 진출했으며 오는 7월부터 2년 동안 WTO법률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현숙 동문(사회사업 62년 졸)



지난 5월5일 서울 리틀엔젤스회관에서 열린 제8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훈포장 중 최고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미국 미네소타 아동복지회 해외입양자문관인 한동문은 지난 75년부터 1만5천여 명의 한국 어린이를 미국 가정에 입양시켰고 특히 이

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글과 전통문화를 가르쳐 미네소타주 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대모'로 알려져 있다.

이상희 동문(수학 94년졸)



지난 5월6일 iTV 아나운서 팀장으로 발령받았다. 94년 KBS에 입사한 이 동문은 '전국은 지금' '6시 내고향' 등을 진행하다 97년 iTV로 옮겼으며 2003년 6월부터 지금까지 iTV 뉴스10의 메인 앵커를 맡고 있다.

김선영 동문(성악 95년 졸)



미국 Artists International Foundation이 주최한 성악부분 오디션에서 우승, 지난 5월8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가졌다.



스승의 삶과 뜻을 기린 이효재 장학금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항상 옆에 계셨던 선생님

지난 5월14일 이효재 장학회(대표 김영복 동문·사회학 63년졸·전 사회학과 동창회장)가 모교를 방문, 이효재 퇴임교수(사회학)가 평소 베풀어주시던 제자 사랑에 대한 보답의 의미를 담은 '이효재 장학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이효재 퇴임교수는 한국여성민우회 초대회장을 지내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아 정신대 문제를 국제적으로 쟁점화시킨 한국 여성운동의 대모,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는 물론, 가정을 지키는 제자들에게도 아낌없는



강득희, 김영복 동문

사랑과 지원을 베풀어 학문의 스승이면서 인생의 스승, 어머니가 되어 오랜 세월동안 특별하고도 독특한 스승과 제자사이를 만들어왔다. 1980년 그가 일시 해직되었을 때는 제자들이 기꺼이 성금을 거둬 연구공간을 마련, 지금의 '여성한국사회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적도 있다.

이효재 장학회의 씨앗은 1990년에 이효재 퇴임교수가 퇴직하면서 내놓은 5백만원. 사회학과 동창회는 이 기금을 바탕으로 65명의 동문이 정성을 더해 5천만원을 조성했으며 이는 가족사회학을 연구하는 사회학과 박사과정생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효재장학회 회원 명단>

- 강득희(80만원)·강인순(50만원)·고정혜(1백만원)·공
- (50만원)·양옥남(80만원)·오수영(50만원)·오영자(1
- 정재(1백만원)·김금래(50만원)·김덕신(50만원)·김
- 백만원)·윤난지(1백50만원)·윤영근(80만원)·이공자
- 명순(80만원)·김명희(50만원)·김모란(50만원)·김미
- (50만원)·이근원(80만원)·이덕희(50만원)·이동원
- 재(50만원)·김순복(70만원)·김영복(1백만원)·김영화
- (50만원)·이선이(80만원)·이재경(1백만원)·인재근
- (1백만원)·김예자(1백만원)·김은미(50만원)·김정기
- (50만원)·장애자(50만원)·장의순(1백만원)·장하진
- (50만원)·김정선(50만원)·김종숙(50만원)·김주숙
- (80만원)·전명숙(80만원)·정순경(50만원)·정영애
- (89만원)·김청자(1백만원)·김현주(70만원)·동소연
- (50만원)·조성남(80만원)·조주현(50만원)·조형(50
- (70만원)·문명재(50만원)·박금혜(50만원)·박미호
- 만원)·진영옥(50만원)·진정연(1백만원)·최새별(50
- (50만원)·박민재(80만원)·박양순(1백만원)·박은자
- 만원)·최영희(50만원)·최옥자(50만원)·하필연(50만
- (50만원)·박춘호(80만원)·박현선(50만원)·박혜선
- 원)·하희재(80만원)·함인희(50만원)·홍기숙(50만
- (50만원)·송계정(1백만원)·신연균(300만원)·안명숙
- 원)·홍옥화(80만원)



**간호학과 장학금으로
9만불 기탁 -
현정옥 해외동문
“이화에서의
매 순간에 감사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현정옥 동문(간호 67년졸)은 지난 2월24일, 4월19일 두차례에 걸쳐 총 9만불의 장학금을 이화국제재단을 통하여 모교에 전달했다. 이 장학금은 그의 모친인 최신실 여사(문과 41년졸)를 기념하여 '최신실 장학금'으로 명명되었다. 간호사에 대한 편견이 많던 시절, 간호대학에 진학하려는 현 동문을 유일하게 지원했던 분이 바로 모친 최신실 여사였다.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현 동문은 "환자에게 친절하고 자신에게는 떳떳하며, 동료들에게 사랑 받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고.



졸업 후 이화에 더 애착이 간다는 현 동문은 후배들에게 "이화동산에서의 대학생활은 그 자체가 축복이니 매순간 감사하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 동문은 미국 미시건 대학병원에서 32년간 근무하다 작년에 퇴직했으며, 가족으로는 부군 박승호(미 연방정부 환경청 근무)씨와 1남1녀가 있다. 현 동문은 9만불 장학금 외에도 간호대학건축기금으로 1만불을 기탁, 총 10만불을 본교에 기탁했다.

**이화인닷컴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동포 돕기 기금 모금
한겨레 신문사에
3백20여 만원 전달**

대외협력처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 이화인닷컴(www.ewhain.net)이 룡천역 폭발사고로 인한 북한 동포를 돕는 온라인 긴급 구호 모금을 실시했다. 지난 4월30일~5월15일까지 이화인닷컴 회원 및 본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캠페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방 동창지회(전주) 및 단대 동창 모임(의대졸업39기), 그리고 해외(일본)에 거주하는 동창들까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이화인들이 참여했다. 총 3,206,840원의 모금액은 지난 5월26일 한겨레신문사의 통일문화재단에 전달되었고, '룡천소학교 다시 짓기 캠페인'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자 명단]

강미경·권남숙·김민정·김상숙·김영인·김용재 ·남은주·노경화·노용·명옥희·박경주·박영자·박미경·박안정용·박은미·박지영·박혜근·배경화·서명원·성현수·손무인·신경림·심기남·안영옥·안영숙·안은숙·어은경·여성애·우애령·유예원·윤병근·윤병현·이경순·이덕규·이수빈·이승현·이양준·이은의·이하나·임영미·장미·정윤화·정혜인·조선영·조희진·현성혜·익명1명 **단체:** 39기 이대의대졸 / 전주동창지회 / 도쿄동창지회

대외협력처 '2004 이대 인명록' 발간



**18만6천여명의 이화인
하나로 이어줄 소중한 자료집**

대외협력처(처장 신경림 교수)가 지난 5월28일, '2004 이대 인명록'을 발간했다. 인명록은 2003년부터 이화인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이화학당 졸업생부터 2004년 2월에 졸업한 학사, 석사, 박사 및 단기과정 수료생의 소중한 자료를 담았다. 인명록은 총동창회에서 1973년 5월, 1987년 5월에 발간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인령 총장은 '인명록 발간으로 각계각층 동문들의 힘이 하나로 모여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 이화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본 인명록은 회원명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명부와 CD-ROM TITLE

이 함께 제작되었으며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8월에 수정본이 발간될 예정이다.

ECC 기금 모금현황

본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큰 계기가 될 이화캠퍼스센터 건립 사업에 동문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옥 동문(보건교육 70년졸)은 6월2일 신인령 총장에게 ECC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했다(사진). 김 동문은 이번 약정으로 ECC 건립 모금 캠페인인 'ECC천사캠페인'에 참여한 최초의 후원자가 되었으며, 이는 타 동문의 기금 참여에도 고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용미 동문(정외 74년졸) 3백만원, 서정희 동문(정외 70년졸) 3백만원, 유해숙 동문(정의 74년졸) 3백만원, 이경희 동문(정의 70년졸) 3백만원, 남명희(이영회연합회 65기)씨가 3백만원을 약정했다.

본교 기숙사에 근무하는 표은자(법학 73년졸)씨는 3백만원을 약정, 매달 급여공제로 납부하고 있으며, 박영오 교수(의학과, 목동병원장)는 대학원특강 강사료로 받은 20만원을 ECC기금으로 기탁했다.

동대문병원발전기금 모금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동대문병원발전기금 모금이 의과대학 교수 및 동대문병원 교직원, 동창의 참여 아래 이루어져 현재까지 3억7천50만원을 조성했다. 이 기금은 낙후된 동대문병원의 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구입 등에 쓰여질 예정이다. 기금조성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는 아래와 같다.



최혜영 5천만원·연규월 2천만원·권성원 1천5백만원·김윤진 1천만원·김종학 1천만원·노권재 1천만원·박동민 1천만원·백희정 1천만원·서정수 1천만원·신길자 1천만원·유정현 1천만원·이순남 1천만원·최수승 1천만원·함정희 1천만원·홍기숙 1천만원·홍영미 1천만원·강소라 5백만원·김경호 5백만원·김도영

5백만원 김성학 5백만원 박홍식 5백만원 백승연 5백만원·조민선 5백만원 천은미 5백만원·편옥범 5백만원·한수정 5백만원 이수영 4백만원·이정희 4백만원·정규영 4백만원·정혜경 4백만원·홍영선 4백만원·박기덕 3백만원·정규용 3백만원·조도상 3백만원·정익모 2백만원·최병욱 2백만원·김광연 3백만원·김신희 3백만원·김미영 2백만원·김정희 2백만원·남수연 2백만원·박춘하 2백만원·장식남 2백만원·권영호 1백50만원·김남섭 1백50만원·김보영 1백50만원·김석호 1백50만원·김선영 1백50만원·김정규 1백50만원·김지수 1백50만원·김철희 1백50만원·김현주 1백50만원·남순천 1백50만원·박혜숙 1백50만원·안기주 1백50만원·오영숙 1백50만원·윤진희 1백50만원·이경희 1백50만원·이복우 1백50만원·이임숙 1백50만원·임숙현 1백50만원·장남욱 1백50만원·장성욱 1백50만원·전현숙 1백50만원·정역선 1백50만원·조강현 1백50만원·조월준 1백50만원·최수전 1백50만원·한우정 1백50만원·김선희 1백만원·김성란 1백만원·김정숙 1백만원·민경미 1백만원·민혜영 1백만원·이미정 1백만원·이재순 1백만원·김민경 50만원·박선옥(의학과 74년졸) 1천만원

의과대학 기숙사 신축기금 모금

의과대학(학장 정화순)은 최근 의대생을 위한 기숙사 신축 모금을 의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전개, 현재 2억1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후원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이경은 1천5백만원·박수연 1천만원·박혜경 1천만원·박혜영 1천만원·서정원 1천만원·성연아 1천만원·유경하 1천만원·이경자 1천만원·이미애 1천만원·이지수 1천만원·이지희 1천만원·이화영 1천만원·정성민 1천만원·정영해 1천만원·정혜원 1천만원·조영주 1천만원·최혜영 1천만원·한후재 1천만원·허정원 1천만원·김경호 5백만원·이선화 5백만원·이승주 5백만원

대외협력처소식

모교 사랑이 이끈 아름다운 장학금

‘단혜선 장학금’ 5억원 조성



권영덕 교수(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는 6월17일에 대외협력처를 방문하여 이미 세상을 떠난 부인 단혜선(생물학과 62년입학·사진) 동문을 추모하는 ‘단혜선 장학금’을 만들기로 하고 5억원을 약속했다. 고 단혜선 동문은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1962년 본교 생물학과에 입학하였고,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다. 권 교수는 고인이 ‘혜선(惠宣)’이라는 이름처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다며, 이 장학금이 이화여대 후배들을 위해 잘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혜선 장학금’은 고인의 뜻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인데, 고인의 후배가 되는 생물학전공 학생 1명과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 1명에게 등록금전액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된다.

• 지난 6월14일 경영대학원 이화여성고위 경영자과정 수료생들의 모임인 이영회연합회에서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사진). 이 장학금은 사학대, 법대, 경영대에 각각 1천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사범대학 교육관 신축기금 모금 활발히 진행중

사범인들의 마음과 뜻을 모은 사범대학 교육관 신축기금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사범대학 교육관 신축기공식은 지난 5월28일에 있었다(4면 기사 참조). 기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금재(교육공학 82년졸) 5백만원·박현숙 교수(특수교육) 5백만원·박혜순(교육공학 52년졸) 3백만원·오옥환 교수(교육학) 3백만원·유정경(교육공학 74년졸) 3백만원·이광희(교육공학 석사과정 84년졸) 3백만원·이순정(교육공학 74년졸) 3백만원·임희진 교수(보건교육) 3백만원·이인숙(교육공학 80년졸) 2백만원·장원희(교육공학 박사과정 95년졸) 2백만원·김정예(교육공학 73년졸, 중앙도서관) 1백50만원·고복희(교육공학 82년졸) 1백만원·곽은순(교육공학 81년졸) 1백만원·김경숙(교육공학 78년졸) 1백만원·김나영(교육공학 83년졸) 1백만원·김안나 교수(교육학) 1백만원·김영희(교육공학 석사과정 86년졸) 1백만원·김재경(교육공학 81년졸) 1백만원·김지민(교육공학 89년졸) 1백만원·염명숙(교육공학 74년졸) 1백만원·유영심(과학교육 74년졸) 1백만원·유화영(교육공학 83년졸)·이미나(이정화)보육과 1회졸업) 1백만원·이용서(교육공학 81년졸, 교무과) 1백만원·이혜선(교육공학 78년졸, 사회봉사센터) 1백만원·임선희(교육 72년졸) 1백만원·전선호(교육 85년졸) 1백만원·정현주(교육공학 87년졸) 1백만원·조경원(교육공학 82년졸) 1백만원·조은순(교육공학 83년졸) 1백만원·조은아(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1백만원·차희주(교육공학 82년졸) 1백만원·최원경(교육공학 83년졸) 1백만원·호재숙 교수(교육공학 은퇴교

수) 1백만원·홍경선(교육공학 박사과정 98년졸) 1백만원·김수진(교육공학 석사과정 92년졸) 50만원·유선자(사회생활 80년졸, 사범대학행정실) 50만원·윤정원(교육공학 석사과정 재학) 50만원·이보연(교육공학 82년졸, 사범대학 교수학습센터) 50만원·정숙화(교육공학 70년졸) 50만원·하은주(교육공학 90년졸) 50만원·고진경(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40만원·김완선(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40만원·서희전(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40만원·신소영(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40만원·오정숙(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40만원·계보경(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30만원·김혜진(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30만원·김소희(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30만원·김수정(교육공학 95년졸, 멀티미디어교육원) 30만원·김정자(사회생활 73년졸) 30만원·배경림(사회생활 73년졸) 30만원·안재원(사회생활 73년졸) 30만원·윤희숙(교육공학 석사과정 03년졸) 30만원·이혜숙(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30만원·정애경(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30만원·최형신(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30만원·남정현(교육공학 01년졸) 20만원·문자영(교육공학 석사과정 04년졸) 20만원·조은별(교육공학 01년졸) 20만원·한지혜(교육공학 석사과정 03년졸) 20만원·정소영(교육공학 89년졸) 10만원

교내 각 기관 발전기금 기탁현황

조형예술대학 프로젝트 기금 모금현황

김동명 2천만원·박규일 2천만원·문경희 2천만원·유장선 2천만원·조봉규 2천만원·박용원 2천만원·삼성생명보험(주)(대표배정중) 6백만원·박의승 108만원·고영호 36만원·권옥순 36만원·김기정 36만원·김동필 36만원·김명수 36만원·김성욱 36만원·김시한 36만원·김원호 36만원·김진철 36만원·노근식 36만원·민양기 36만원·배양홍 36만원·변재홍 36만원·유진성 36만원·오혜은 36만원·이미승 36만원·이상은 36만원·이세재 36만원·이원숙 36만원·이희원 36만원·최성모 36만원·최중선 36만원·한만수 36만원·박혜숙 30만원·정종근 12만원

경영대학발전기금 기탁

김정숙(이영회 69기) 1천만원

이화법률전문인양성기금

익명 1천만원·이선희(법학 73년졸) 3백만원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조순옥(보건간호 74년졸) 외 5명 2백만원·김희숙(임상간호 74년졸) 외 7명 4백만원·간호학과 23기(장보경 외) 2백만원·최애숙(간호 84년졸) 2백만원·강석은(간호 00년졸) 1백만원·이정원(간호 78년졸) 2백만원·이명숙(간호 71년졸) \$360·양정남(간호 60년졸) \$300·권명자(간호 71년졸) 30만원·박혜숙(간호 71년졸) 30만원·이옥순(간호 71년졸) 30만원

장학금 기탁

• 김정옥 동문(독문 69년졸)은 독문학 전공학생의 해외연수를 위한 장학금으로 지난해 5천만원 약정에 이어 4월19일에 5천만원을 추가, 총 1억원을 약속했다. 독문학 전공학생의 해외연수를 위한 이 장학금은 2003년도에 4명의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8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지난 5월6일 경력개발센터 개원 1주년 기념행사에서 특강을 한 김성주(성주인태내셔널 대표)씨는 강사로 478,000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 자연과학부 1학년 이혜수 학생은 본인이 받은 신입생 특별장학금의 10%에 해당하는 435,000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작은 금액이지만 자신이 받은 장학금 혜택을 다른 학생들과 나누기 싫어 바란다고, 앞으로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의 장학금 기탁현황

정치외교학과 동창회(회장 서미영) 5천만원·성기홍(이영회 57기) 5천만원·안윤정(독문 69년졸) 5천만원·한상준 3천6백만원·대학교회 3백만원·김옥수 2백만원·LA Young Nak Church Alumnae \$1,000·최옥순(이영회 55기) 70만원·박은주 30만원·조왕하 30만원·하영구 30만원·박용만 30만원·남중수 30만원·구학서 30만원



동대문 병원은 지금 변신중

개원 59주년 맞아 인공관절센터 전용병동 등 대대적인 시설 개보수

개원 59주년을 맞은 동대문 병원(원장 연구월)이 지난 4월17일, 개원 기념식(사진)을 가졌다. 또한 5월17일에는 신병동 7층을 새롭게 단장, 인공관절센터 전용병동을 열었으며, 6월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재개원하는 등 동대문 병원의 변신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17일(오전 8시), 윤건일 의료원장, 박영요 목동병원장, 정화순 의과대학장, 변영순 간호과학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대문 병원(제1회의실)에서 열린 개원 59주년 기념식에서 연구월 원장은 “올해는 병원 시설 재보수, 공사 등으로 교직원 모두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밑바탕으로 내년 60주년에는 더욱 희망찬 개원 기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 직원 및 모범부서 시상과 함께 30년을 근무한 피부과 함정희 교수를 비롯, 20년 근속자 11명과 10년 근속자 50명에 대한 장기근속자 포상도 이뤄졌다.

동대문병원이 지난 5월17일 신병동 7층에 새롭게 마련한 인공관절센터 전용병동(총 48병상)은 병실과 복도 도장, 조명 등을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주며 인공관절센터 전용 중환자실도 별도로 마련해 환자들이 집중적인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동대문병원은 또한 지난 6월10일 신설동 소재 종로구 구민회관에서 ‘건강한 심장을 영원히’를 주제로 무료 검진 및 건강 강좌를 열었다. 신길자 교수가 고혈압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혈액 및 체지방 검사, 혈압 측정 등 다양한 무료검사를 실시했다.

이화백혈병후원회, '사랑의 음악회' 개최



이화백혈병후원회가 주관한 '사랑의 음악회' (사진)가 지난 4월16일 저녁 7시,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 박영요 목동병원장은 “백혈병 환우들을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며 “환우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가수 윤희주씨의 찬양과 간증을 시작으로 해 서울 주니어오케스트라의 실내악 연주가 있었으며 신양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백혈병을 이긴 문동석 씨를 비롯한 환자들의 투병수기 발표, 백혈병 환우들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물 상영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이화백혈병후원회가 주관한 '사랑의 음악회' (사진)가 지난 4월16일 저녁 7시,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음악회에서 박영요 목동병원장은 “백혈병 환우들을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은 바로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며 “환우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가수 윤희주씨의 찬양과 간증을 시작으로 해 서울 주니어오케스트라의 실내악 연주가 있었으며 신양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백혈병을 이긴 문동석 씨를 비롯한 환자들의 투병수기 발표, 백혈병 환우들의 생활상을 담은 영상물 상영 등의 순서로 이뤄졌다.



동정

윤건일 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학술상임이사로 선임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지난 5월15일 대한병원협회 제 32대 집행부의 학술상임이사로 선임됐다.



박영요 목동병원장, 심장재단에서 감사장 받아

박영요 목동병원장이 지난 3월26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심장재단은 목동병원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한 다며 감사장을 보내왔다.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 일본 산부인과학회 정기학회 참석

목동병원 산부인과 김승철 교수가 지난 4월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 56차 일본 산부인과 정기회의에 국제부문 좌장 및 연자로 참석했다. 김교수는 이 대회 국제부문에 'Microsatellite Instability and Loss of Bax Expression in Endometrioid Endometrial Adenocarcinoma'란 논문으로 회장을 수상했다.



신경외과 김상진 교수, 미국 신경외과학회 척추분과회의서 우수상 수상

목동병원 신경외과 김상진 교수가 지난 3월말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2004년 미국 신경외과학회 척추분과회의에서 포스터 연제 'The Vascular Anatomy anterior to The L5-S1 Disc Space in Koreans'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영양과 이현숙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아

목동병원 영양과 이현숙 과장이 지난 5월7일 63빌딩 3층 코스모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45차 정기총회에서 보건의료제도 발전 및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크게 공헌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총무과 서상덕씨, 근로자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목동병원 총무과 서상덕씨가 지난 4월30일 근로자의 날을 기념해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열린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서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목동병원, 직원 마일리지 시상식



목동병원(원장 박영요)은 지난 5월6일 첫 번째 마일리지 시상식(사진)을 갖고 병원 발전에 공헌한 직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 병원 마일리지 제도는 비용절감을 위한 제언, 친절도, 업무지식 공유 등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시상식에서는 원무과 김창성 계장이 은상을, 기획과 최원호 과장과 간호부 이영자 간호사가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목동병원, 다채로운 가정의 달 행사 펼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목동병원은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쳐 장기입원환자와 어린이환자들을 위로했다.

지난 5월3일 저녁 7시, 병원 로비에서 마술사 김영일 전도사의 흥미로운 마술쇼가 펼쳐졌고 4일 오후 2시에는 소아병동인 111병동에서 이 병동 간호사들이 준비한 '푸른 세상 푸른 마음'이라는 잔치(사진)가 열렸다. 한편 원목실(원목 조미숙)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환자와 70세 이상 노인 환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했으며, 소아암 병실에 도서함을 설치하고 도서를 기증하는 뜻깊은 행사도 펼쳤다.

